

보도시점 2024. 5. 16.(목)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종료시까지 엠바고

배포 2024. 5. 16.(목) 11:00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30억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 30억불로 증액 추진,
- 물류 인프라·기후변화 대응 등 대형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쉐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5.16.(목) 서울에서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한 가운데 한-캄보디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오늘 기본약정 체결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규모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미화 30억 달러로 증액되었다.

* (기준) '22~'26년 15억불 → '22~'30년 30억불

양측은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류 인프라, 기후변화 대응, ICT 분야 등에서 캄보디아와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간 개발협력 파트너십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기본약정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 내 고부가가치 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기업의 기반 시설(인프라)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8770)
		담당자	사무관 김서정 (ryucia98@korea.kr)